



(2026년 8월 6일 목요일 15면)

‘죽음의 문턱’ 넘고 “권위·특권 싹 비웠다”

송파구의회 3층 의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생경한 정적과 마주하게 된다. 수많은 지방의회 의장실을 채우곤 하는 화려한 수석, 웅장한 난초 화분, 정치적 세를 과시하는 소장품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손병화 송파구의회 의장은 “이 자리 또한 2년이 지나면 미련 없이 나가야 할 자리가 아니겠느냐”며 “나갈 때 가볍게 나갈 수 있도록 비품을 싸놓지 말라고 제가 제일 먼저 싹 치워버렸다”고 첫마디를 건넸다. 그의 언행에는 거 추장스러운 권위의 흔적이 완전히 탈색돼 있었다.

체중 97kg에서 75kg까지, 단 7개월 만에 22kg을 감량한 그의 혹독한 절제력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었다. 신장이 망가지며 아내와 두 딸이 장기 기증 검사를 받으러 다니던 비극의 문턱에서 일궈낸 생명의 회복이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특유의 단단함 때문이었을까. 제10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그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던 의회의 특권과 비효율을 거침없이 배어내고 있다.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비결 역시, 지위나 외형이 아닌 ‘인간 손병화’가 보여준 치열한 삶의 고백과 진정성에 있었다.

그가 의장 취임 후 단행한 첫 번째 혁신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 배정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꾼 것이다. 유능한 지원관을 의원들이 사적으로 맞바꾸던 해묵은 관행을 단칼에 끊어냈다. 일부



의원들의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지만, 손 의장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정책지원관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 살피고, 상호 존중을 통해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나아가 기존 8급이던 직급을 7급으로 상향하고, 계약 방식을 ‘1년 검증 후 2+2년’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했다. 실력이 쌓일 만하면 이직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의원과 지원관이 동등한 파트너로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다.

권위주의 타파는 일상에서도 이어졌다. 출근 첫날, 의장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아두고 대기하던 비서진

에게 그는 “의장이 뭐라고 엘리베이터를 잡아두느냐”며 “우리는 무조건 계단으로 걷자”고 선을 그었다. 송파구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입성한 진보당 박지선 의원에게도 정파를 떠나 먼저 손을 내밀며 참신한 시각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의장의 이토록 철저한 자율과 절제는 삶의 절벽 끝에서 건져 올린 자산이다. 과거 건강 이상으로 두 딸이 장기 기증을 자처하던 순간 가슴이 찢어졌다면 그는 그날로 죽기 살기로 걸어 신장 기능을 극적으로 회복시켰다. 100명 중 2~3명 나올까 말까 한 기적이 었다. 나 자신에게 방심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금도 타이트한 슬리핏 양복을 고집하며 매일 아침 저물어 오른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시선은 구민들의 아픔으로 향한다. 얼마 전 화훼마을 화재 현장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 탓에 쌀 한 포대조차 즉시 얻지 못해 막막해하던 이재민들의 손을 잡고 무력감에 눈물을 쏟기도 했다. 요식업을 운영하며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한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임기 내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정비, 화훼마을 이주 대책, 석촌고분 지하주차장 건립 등 송파의 숙원 사업들을 서둘러 시 및 구청과 끝까지 판을 짜서 해결하겠다고 다짐한다.

“2년 후 임기를 마치면 미련 없이 평의원으로 돌아가 동료들과 따뜻하게 술 한잔 나누고 싶다”는 손 의장. 그는 “의장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자리”라며, 화려한 수식어보다 ‘행동’과 혁신으로 구민의 삶을 바꾼 의장으로 기억되길 원했다. 홍준성 기자